

그 사람 지금은

(10) 소설가 천승세

■ 전라도 역사이야기

-남평 심리송

“요즘 문학 진지함 부족하고 조급증에 빠져”

그는 '유람'중이라고 했다. 벌써 5년째다. 귀소본능일까. 임시 은거지는 남쪽바다 언저리였다. 태어나서 자랐고 수많은 소설과 희곡, 시의 자양분을 얻었던 목포 연안이었다. 그의 피를 구성구석에 문학적 유전자를 새겨준 한국 문단의 대모 박화성(1904~1988)의 활동 무대도 바로 그곳이었다. 소설가이자 극작가, 시인인 천승세(72). 그는 용담동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 앉아 사위어가는 문학혼을 되살리기 위해 애먼글면 파도와 함께 씨름하고 있었다. 무엇이 그를 다시 이곳으로 떠밀었을까. 그의 말에서는 문단 풍토에 대한 환멸과 실의, 형언할 수 없는 운명의 질곡, 10여년 전 세상을 등진 문우(文友) 천상병(1930~1993) 시인에 대한 그리움이 진하게 묻어났다. "말은 일거리가 있는데 글이 잘 안되네요. '천상병 평전'을 400장 정도 쓰다가 덮어버렸어요" 흰 머리, 흰 수염에 배례모를 쓴 모습이 천성 문인 품새인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천상병=기인(奇人)'식의 세속적 등식을 어지간히 싫어한다. "상병이를 '괴짜' 정도로 취급하며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것은 부관참시나 다를 게 없어" '새' '귀천' 등의 시집을 통해 우주의 근원, 죽음과 피안을 통찰한 천 시인을 '천진부



'호치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천승세씨가 1982년 겨울 한국펜클럽 회장 선거장에서 어머니 박화성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제공

1985년 한국문학 연재소설 '빙등'

안기부 압력으로 2부 쓰다가 중단

구의 정치성과 유사한 시선을 지닌 문학도의 텍스트'라고 푸는 그가 평전을 쓰겠다고 나선 것도 문학적, 인간적 복권을 위해서였다.

그와 천상병은 '일본의 격식을 깨부순 파격적 우정'을 나눴다. 천상병은 1967년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출소 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상병이가 문인들이 많이 다니던 기원에 나타나면 모두 슬금슬금 사라지곤 했다. 그래서 내가 셋방살이하는 우이동 판자집 단칸방으로 데리고 갔지. 거기서 9개월여동안 내 아내, 다섯 자식들과 등 가슴을 부대껴며 한 몸이나 다를 게 없게 살았어"

그는 작고한 문인 34명과 살아 있는 6명에 얽힌 문단이야기를 엮은 '꽃같은 세월아 꽃같은 사람야'를 집필 중이다. 이 책을 통해 예술가적 삶의 전범을 보여줄 요량이다. 천상병 평전은 서거 13주기를 맞는 내년 4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천승세는 목포가 배출한 한국 문학의 선구자, 소영(素影) 박화성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하늘은 창공 하나 뿐인줄 알았다. 어머니를 잃고 나니 하늘이 둘이더라"는 말로 모정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고교 시절까지만 해도 예술가는 꿈도 꾸지 않았어. 가라데(4단)를 익히며 야전사령관을 꿈꾸는 '강개'였는데 육사 시험에 떨어졌지. 그 와중에서도 러시아 문학을 탐독하곤 했어" 목포고 졸업 후 서울로 올라온 그는 1957년 12월 초순 어머니가 강릉의 친척집에 가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사고'를 치고 말았다. "'소설이나 한 번 써봐'하는 생각으로 원고지를 꺼냈지. 목포 처녀와 사랑을 나누다 분노구덩이에 빠진

약력 ▲ 목포 출생, 목포고, 성균관대 국문과 ▲ 195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짐레와 소' 당선 ▲ 희곡 '민선'으로 제1회 한국연극영화예술상 ▲ '황구의 비명' '폭염'으로 만해문학상 수상 ▲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추억을 소재로 '짐레와 소'라는 단편을 써내려갔어" 단 8시간만에 탈고한 이 작품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염상섭과 안수길의 심사를 받았다.

그는 소설에서 멈추지 않았다. 등단 6년만에 희곡에 도전해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물꼬'로 입선한 데 이어 국립극장 공모에 출제작 '만선(滿船)'이 뽑혀 김우진-차범석-천승세로 이어지는 목포 극작가의 계보를 잇는다. 1990년에는 창작과 비평에 10여편의 시를 발표하고 시집 '봄꽃'을 펴냈다. 소설가 이상락은 그의 이런 문학적 궤적의 바탕을 '모골이 송연해지는 신인정신'으로 본다.

'내 문학의 본령은 펄박 받는 빈자들'이라는 그의 문학에서는 바다를 빼놓을 수 없다. 희곡 '민선'을 비롯 '낙월도' '신궁' 등은 해양문학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1년에는 광주일보에 조선어인사를 그린 '선향'을 연

재했다.

그의 치열한 작가정신은 해양대하소설 '빙등(氷燈)'의 탄생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1973년 그는 각서까지 쓰며 배령해로 가는 동태잡이 원양선을 타고 험난한 항해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연근해 체험은 웬만큼 했는데 원양은 잘 모르니 목숨 걸고 나가보기로 결심했지. 중간 기항지도 없고 동태 8만상자를 가득 채워야만 돌아올 수 있었어"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1985년 조정래가 주간을 맡고 있던 월간 '한국문학'에 이 때의 체험을 살려 '빙등'을 연재했으나 안기부의 압력으로 2부가 나가던 도중 중단됐다.

천승세는 자유실천문인협의회에서 활동했고 그 뒤를 이은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을 맡아 군사정권의 폭압

현재 '천상병 평전' 집필 중

"상병이 괴짜 취급해선 안돼"

에 항거했다. 덕분에 '반체제작가'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런데 요즘 문학에선 진지성을 찾아볼 수 없어. 지식을 바탕으로 한 날조문학이 판치고 조급증에 빠져있지. 집중화와 대량화도 문제야. 우리는 목숨 걸고 했는데 요즘은 취미로 하려고 해" "문학마당은 진실과 정의에 순교하는 막장'임을 강조하는 천승세는 "단편 소설의 멸종시대" "모르는 것은 안쓰는 것도 예술"이라며 요즘의 문단 풍토를 신랄히 꼬집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3시간여 동안 그는 손에서 담배를 놓지 않았다. "예술가는 삶 자체도 예술이어야 한다"는 천승세는 "노벨문학상은 문예제국주의의 개근상"이라고 혹평했다. 이처럼 결벽증에 가까운 예술관과 삶의 철학을 그는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자리를 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사진=나평주기자 mjna@kwangju.co.kr

드들강변에 조성된 홍수 방제림 '그늘이 10리 드리웠다' 이름 붙여

담양읍내 객사리 백천(白川)이 관방제림(官防堤林)은 꽤 알려져 있다. 역사에 남아있는 숲쟁이로는 광주의 유림숲이 유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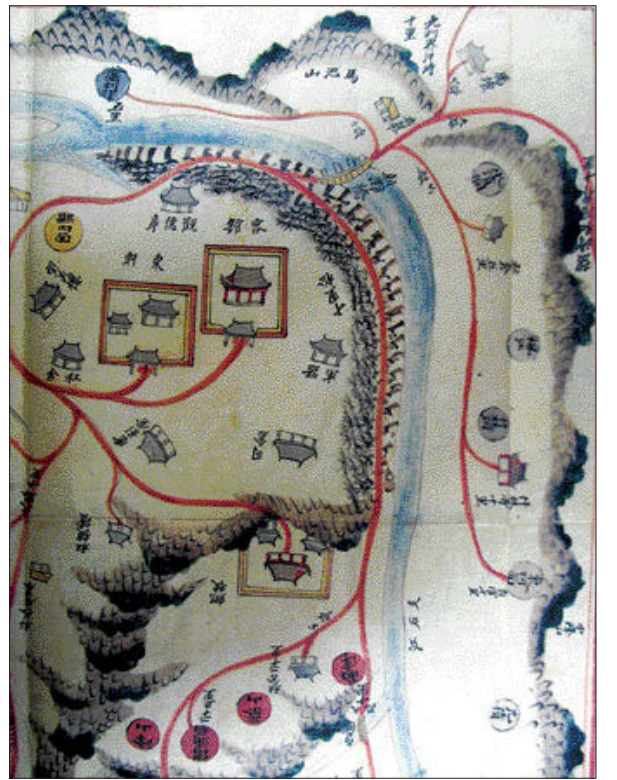
나주와 남평읍내 동문 밖에도 강변을 따라 숲쟁이가 조성돼 있었다. 특히 1872년께 남평현 지도(사진)를 보면 드들강변에 '십리송(十里松)'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다.

1920년대 남평읍지에는 "십리송은 관문 밖 동북쪽에 있다. 조선 초 현감 우성(禹成)이 흙을 쌓아 심었고, 백인걸(白仁傑·1541~1545년 재임) 현감이 길렀다. 그늘이 관아의 길 10리를 덮어 푸르게 되었다"고 기록돼 있다.

남평은 백제 때 미동부리(未冬夫里)였다. 물이 풍부하고 들이 넓은 마을이라는 뜻이니 수평(水坪)으로 새기고, 영평(永坪)이 쓰였다. 물을 뜻하는 '미'는 '마'로도 변해 남쪽을 의미하므로 남평이 되었고, 1914년까지 독립된 군이었다.

옛 사또고을에는 대개 향교가 남아 있다. 교원리 원촌마을 산 161번지에는 지방유형문화재 126호로 지정된 남평향교가 있다. 본디 1420년 동문 밖에서 건립했다가 1534년께 옮겼다고 한다. 바람으로 남녘 산기슭 한적한 곳으로 이전했던 성 같다.

남평초등학교에는 옛 동헌터라는 안내문과 함께 9기의 수령빛들이 서 있다. 고려 때 육룡사(六龍寺)가 있었다는 이 관아터는 월연대(月延臺·해발 120m) 북쪽 기슭에 펼쳐져 있다. 진산(鎭山) 월연대는 덕룡산(386m)에서 북동쪽으로 향한 능선이 풍산리 식산(食山·292m)을 거쳐, 드들강에 범취 우뚝 서 있어 '호산(虎山)'이라고도 칭한다.



화순에서 내려온 드들강은 굽이돌아 남평읍내 동북편으로 흘렀다. 큰물이 나면 드들피(砥石山·169m)와 문암(文岩) 밑을 공격한 뒤, 읍내로 향해 넘쳤다. 십리송은 바로 이런 지리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조성된 홍수방제림이었다.

일제는 1930년대 영산강에 식량증산계획의 일환으로 치수공사를 벌였다. 남평읍 내에도 잦은 범람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1931년부터 3년간 양안에 12km의 대보를 축조했다. 이때 십리송이 사라졌다.

지석산 비랑주위는 1981년 국민관광지가 되었다. 쪽물 백사장 섬 숲밭에는 1587년 윤선기가 지은 탁사정(濯斯亭)이 있었다. 풍림리 숲 안에는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 32호로 지정된 문바위가 있다. 남평문씨 시조 문다성(文多省)의 탄생설화지로 늘 '장자'는 낯설 흔적이다. 동사리 당산숲에는 남근석과 17세기 토지매매기록이 새겨진 수부막비(水夫幕碑)가 마주보고 있다.

현 지석강 제방을 두 배로 넓혀 산책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서 있다고 한다. 수부막 숲과 연결하여 옛 십리송이 재현되면 남평읍 풍경을 한층 아름다울 것이다.

/김경수 (사향토문화진흥위원장)

Large advertisement for the 8th National Police Fire Relief and Welfare Fair. It features a central image of a man speaking at a podium, surrounded by portraits of various officials and sponsors. Text includes '제8회 경찰 소방 복음화 축복대성회', '주최: 경찰 소방 복음화 및 민족적문화 이데올로기', '일시: 2006년 11월 14일(화) ~ 15일(수)', '오전 10시 30분 / 저녁 7시 30분', and '장소: 순복음 광주교회 대성전'. At the bottom, it lists numerou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like '한국경찰소방선교회의회' and '한국기독교총연합회'.